

독서주간의 주요신문 보도내용

한국일보

讀書는 바로 國力이다.

요즈음 우리 젊은이들의 일부에서는 텔레비전의 스포츠중계나 電子娛樂을 즐기고 讀書를 멀리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한다.

대학앞의 서점이 문을닫고 업종을 전자오락실로 바꾸었다는 보도도 읽었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조차도 이제는 세계명작동화집을 읽는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의 야구 중계나 전자오락게임에 집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어느것이나 讀書를 멀리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경향은 긴 눈으로 볼때는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우리가 독서를 통하여 現代文化의 창조적 생산과정을 알지못하고 그결과만을 재미 위주로 즐기다가는 우리는 創造的 인간이 되지못하고 언제나 남이 만든것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他律的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

창조적 생활을 위해서는 독서보다 좋은 것이 없다. 독서는 인간의 정신을 살찌게 하는 귀중한 양식이다. 독서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는 부강하고 발전하며, 독서하는 국민이 적은 나라는 쇠잔하고 남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책을 통하지 않고서는 先人들의 文化的業績을 간직할 수도 없고 섭취할 수도없다. 그리고 先人들의 지혜의 축적을 흡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발전된 文化人의 생활을 할수없으며, 시행착오를 되풀이 할 수 밖에없다. 우리는 도대체 책과독서를 통하지않고서는 文化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독서야말로 현대사회와 같이 대중매체에 의하여 인간을 他律的 同調的 受動的 人間型으로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主體性과 自律性을 갖고 창조적 생활을 해 나가면서 자기자신과 나라와 사회를 함께 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독서는 습관과도 직결되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야 독서하는 문화국민을 만들고 자주부강한 나라를 만들수 있다. 우리들 모두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우리들의 독서하는 일상생활을 정립하는데 혹시 참고가 될수도 있는 평범한 다섯가지 참고사항을 들어서 스스로 음미해 보기로 한다.

첫째 <古典>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는 학문상으로 고전이라고 평가하는 책들은 결코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文化史에 획기적 寄與를 한 충실한 내용을 갖고 있기때문에 수많은 교양인과 학자들이 읽고 또 읽고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것같은 엄격한 사회적 학문적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고전이 된 것이다.

따라서 古典이야말로 시간이 아깝다는 독후감을 갖지않고 안심하고 읽을수 있는 책들이다. 古典속에는 先人들의 온갖 지혜가 다들어 있다. 우리는 마치 의상실의 유행처럼 독서에도 유행이있는 것을 가끔 경험한다. 그러나 유행에 따른 독서는 화제만 요리할뿐 바람이 지나가고나면 공허가 남는다.

고전에는 그러한 外飾이 없다. 고전은 언제나 변함없이 巨木처럼 서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고 지혜를 만드는 원리까지 가르쳐 준다. 고전이야말로 유한한 인간의 생애에 效果的 讀書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다음으로 들어야 할것이 아직 채 古典으로 골라질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최근의 많은 책중에서(良書) 만을 골라 체계적으로 읽는 일이다.

오늘날과 같이 서적이 대량생산되고 온갖 잡서가 난무하는 시대에는 아무 책이나 손가는대로 읽어서는 시간만 낭비하기 쉽다. 반드시 <좋은책>을 골라서 읽어야 한다.

어떻게 良書를 고를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전공이나 관심에따라 <體系的 讀書>를 함으로써 자기스스로 양서를 고를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체계적 독서를 하면 스스로 양서를 고를 능력이 생긴다.

체계적 독서를 하지않고 아무 책이나 흥미본위로 닥치는대로 읽어서는 연속성에 의한 反復과 強調의 乘數的 효과가 결여되어 자기의 양식으로 섭취되는 부분도 극소화되고 양서를 판별하는 능력도 생기지 않는다. 目錄表를 만들거나 그렇지 못하면 머리속에서라도 목표표와 같은것을 구상하여, 반드시 체계있는 독서를 해서 지식과 교양도 체계있게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쁜 일상생활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번잡스럽다고 느끼면 믿을만한 <書評>이나 <양서추천>에 의존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이다.

세째로 권고하고 싶은것이 자기 전공과 관심내에 있어서의 균형있는 독서이다. 우리들은 자신의 미래의 설계와 관련하여 대체로 자기의 지식과 교양이 어디가 부족한가를 잘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있는 책을 균형있게 읽을 필요가 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독서는 흥미위주로만 해서는 큰 도움을 얻지 못한다. 또한 독서는 하나의 해설에만 몰입하는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독서는 마치 偏食하는 것처럼 건강을 해친다. 설혹 흥미가 약하더라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책을 균형있게 읽어서 건강한 지식과 교양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네째로 독서는 精讀法을 권고하고 싶다. 요즈음 速讀法도 나오고 많은 효과를

연고있다고 들리지만 극히 가벼운 책을 제외하고는 속독이 질의 독서를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다. 책의 종류에 따라 속독법이 경제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독서의 진미를 알고 영양을 풍부히 섭취하려면, 정독법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끝으로 가능한한 자기가 독서한 책을 모아 작은 個人藏書를 설치할 것을 권하고 싶다. 물론 때로는 이것이 무리한 권고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큰 感銘을 얻은 책 만이라도 장서로 만들어 놓으면 책이 언제나 다시 열어볼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되고 책의 내용이 자기의 체질속에 배어들게 된다.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말이있다. 청년시절에 몇권의 책에서 시작한 장서가 큰 경제적 부담없이 일생을 통하여 매우 특색있고 충실하며 체계적인 藏書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참으로 큰감명을 준 책이나 절실한 지식을준 책을 작은 장서로 설치하여 귀중하게 가까이두고 심지어 괴로울때나 슬플때까지도 자기의 장서에서 자기의 가까운 친구인 책을 손쉽게 열어서 의논할수있는 승화된 문화인의 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한다.

한참 책읽기 좋은 가을이다. 우리 모두 독서하는 습관을 배양할 필요가 절실하다. 讀書야말로 國力이다. (愼錫廈 서울大教授)

서울신문

무엇이 우리를 책과 멀게 하나

24일부터 30일까지는 29번째 맞이하는 독서주간이다.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오는 우리사회」의 標像을 내걸고 금년 또한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책읽기를 권장하는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韓國도서관협회와 大韓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는 물론, 출판사 서점들도 독서인구저변확대를 위한 행사준비에 한창이다. 독서주간 동안에는 전국공공도서관이 무료개방되고 개관시간도 연장되며 각급학교 특수도서관도 일반인들에게 개방된다. 아동도서협회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은 발전할수 없다」 「책을읽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두가지 포어 30만장을 찍어 나누어주며 주민들을 책속으로 끌어드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운동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는 아직 미지수다.

독서장려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일종의 국민운동이지만 이로해서 독서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책과 우리들을 갈라놓고 있을까.

우리주변에는 독서를 저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 「책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책읽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책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독서저해요소 부터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교보문고 기획부장 李勝羽씨는 많은 국민들이 책을 외면하는 이유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요즘 시중에 나오고 있는 책 가운데 상당수는 지나치게 내용이 어려워 독자들을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다고 선정적인 저질소설이나 에로물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다.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쓰거나 역사·공상과학소설 같은 중간층이 읽을수 있는것이 활발히 출판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다.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역사전문가가 아닌 작가가 쓴 역사소설이 쏟아져 나와 일반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가벼운 읽을거리를 찾는 독자들의 성향은 英國의 경우 60년대에, 日本에서는 7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자들의 성향에 맞는 책을 만들어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沈友社 대표 尹炳斗씨는 각급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의 비뚤어진 독서지도에서 이를 찾고 있다. 그는 독서는 담배나 마약같은 것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버릇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민학교가 어린이들에게 독후감을 써오게 하는 등 독서 지도를 하고는 있으나 위인전이나 추천도서 위주여서 어린이들이 흥미를 읽고 있으며 중·고교는 점수위주의 학교교육에 치우쳐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적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가정에서 어린이들이 책읽는 것을 공부로 여기지 않고 교과서 이외의 다른 책을 읽을 경우 「공부는 하지 않고 무슨 똥똥지냐」고 꾸짖는 것도 책을 멀리하게 되는 요인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吳鎭煥 교수(漢陽大)는 덤핑출판과 마구잡이 번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길거리나 종로 6가등에서 팔리는 책 가운데 수십만원짜리가 어떻게 정가의 70~80%까지 할인될수 있는지에 대해 의아해 했다.

이들 책은 대개 내용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교정이 제대로 안돼 조잡하기 이룰데 없다. 吳교수는 버젓한 출판사에서 간행된 책가운데서도 오역이 흔히 발견된다고 말했다. 吳교수는 오역투성이인 번안 번역서야말로 독서를 저해하는 독소라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라고 역설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 오락실과 프로스포츠의 열기도 빼놓을 수 없는 저해 요소이다.

「프로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이들이 많아 중계시간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분야와의 형편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는게 悅話堂 李起雄 사장의 견해이다.

그런 의미에서 MBC TV가 18일 보여준 독서캠페인은 국민들의 독서의식을 높이는데 매우 유익한프로 였다고 평가했다.

선진외국의 경우 독서계절이 따로 없다. 독서를 생활의 일부로 하고 있는것이 다. 우리도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국민이 되기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일반대중이나 출판인들이 다같이 생각해 볼 일이다. <丁日燮 기자>

朝鮮日報

몸부림치는 書店街

오랜 불황으로 표정을 잃었던 서점들이 가을을 맞으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서울 광화문동에서 종로 2가에 이르는 서점가는 요즘 마치 「가을 철새」들이 되 돌아온 듯한 느낌이다.

불벌더위를 피해 떠났던 독자들이 다시 책을 찾아와, 가는곳마다 흐뭇하고 알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들이 물론 모두 책을 사가는 것은 아니지만, 苦戰을 거듭해오고 있는 서점가로서는 「반가운 손님」임이 분명하다.

길목이 좋고 에어컨 시설이 잘된 일부 대형서점들은 지난 여름에도 상당한 매출고를 올렸다지만, 이와는 거리가 먼 군소서점들은 대형서점쪽에 고객을 모두 놓쳐버린채, 올해들어서만도 적국적으로 1백여개 서점이 문을 닫는 「惡性불황」을 겪어야 했다. 특히 최근들어 무수히 늘어난 전자오락실, TV의 스포츠 중계등에 의한 여파도 「책을 멀리하는 사회」의 치명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여러가지 악조건속에서 독서의 계절, 독서주간(24~30일)을 맞은 서점가는 苦肉之策끝에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 올가를 고객유치에 몸부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매장면적 2천여평으로 규모가 가장 큰 광화문 教保문고의 경우, 요즘들어 하룻동안 찾아오는 고객은 2만5천여명선. 점심시간부터 下校시간인 오후 6시 사이에는 발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밀려들고 있다.

「이 시간 사이에는 시간당 평균 2천5백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온다」는게 이곳 국내 서적부 박현규씨의 말이다.

이 가운데서도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은 문학, 교양물의 新刊코너다.

대다수 20대의 독자들로, 비좁은 진열대가 2중, 3중으로 둘러싸이는 진풍경을 빚고있다. 이같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찾아오는 것은 「편리한 지역, 종류의 다양성, 에어컨 시설때문」이라고 독자 金玟淑양(23)은 말하고 있어, 대형백화점을 찾는 일반고객 심리를 여기서도 읽을 수 있게 했다.

教保문고는 며칠전부터 60~70년대초에 발간된 中古도서 판매코너를 마련, 발행당시의 싼값에 팔고 있어 여기에도 인파가 상당수 몰리고 있는데, 대다수 유명출판사들의 간행물들. 군소출판사의 고층을 여기서도 엿 볼 수 있었다.

종로 1가 한국출판판매주식회사는 불황타개의 적극적인 한 방법으로 국내 최초로 경품판매를 실시, 이채를 띠고있다.

「국내 서적은 유통질서를 위해 그대로 定価판매를 하지만, 값비싼 外書에 한해서나마 독자 봉사, 그리고 불황 해소책의 하나로 한달동안 할인판매를 하기로 했다」고 대표 呂丞九씨는 열띤 의욕을 내보였다. 그는 「外書독자의 증가추세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비싼 책값을 최대한 인하하는 서점계의 노력이 필요할 시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서점은 TV경품판매 아이디어와 함께 올가을 특별기획으로 「古典1百選展示」도 열고 있는데 이 코너에도 많은 사람이 찾아들고 있다. 종로 2가의 종로서적은 지독한 울어름 불황에도 教保문고와 마찬가지로 매장공간을 넓히는등 社勢가 확장되고 있는 異例의인 서점이다.

1층부터 5층까지의 매장현장은 하루인파가 1만5천명선으로 역시 이곳에도 3층 문화예술서적 코너가 가장 붐비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컴퓨터 서적코너. 內書담당책임자 張德燕, 金上寧 씨는 「컴퓨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종로서적도 자체 선전의 한 편법으로 출판계 관계자, 독자 등을 초대하는 연극, 무용, 음악제까지 추진하는등 독서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종로통 서점가의 終點格인 同和서적도 가을들어 고객이 크게 늘어나 하루 5천명선에 이르고 있다. 5층까지의 매장은 들락거리는 젊은 독자들로 계단이 붐비고 있다.

여기서도 컴퓨터 도서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손님이 훨씬 많은 편」이라고 매장 책임자 金光洙씨는 말했다. 그러나 서점공간에 비해 운영은 어려운 처지이다.

대표 林仁奎씨는 「이만한 공간을 금은방이나 일반 사무실로 내주면 운영상으로는 黑字가 될것이 뻔하지만, 문화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현실에서 있는 것마저 없애기가 너무 안타까와 赤字운영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문화공간을 애써 지켜나가려는 그의 의지속에서도 우리의 출판문화계의 안

타까운 속사정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敎保문고나 종로서적같은 일부 대형서점은 지난 여름에도 불황을 모른채, 매장공간을 확대하는 異變(?)을 낳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예외의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에어컨 하나 제대로 시설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의 중소 서점들은 예나 지금이나 불황의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형서점들이 매장공간을 늘려나가는 것은 「국민 전체적으로 독서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보다는 군소서점 독자가 그 쪽으로 흡수된 결과」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서적상 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서점은 3천 4백78개소이다.

77년 정가판매제가 실시되면서, 반쯤처리가 가능한 利點, 그리고 정가판매에 의한 정확한 이윤보장 등으로 서점이 한때 크게 늘어났으나 81년도 이후 부터만 해도 매년 1백여개 서점이 폐업, 술집이나 전자오락실로 간판을 바꾸가는 사태를 낳고 있는게 오늘의 서점계 현실이다. 금년들어 전국적으로 폐점된 1백여개소 가운데는 서울지역의 서점이 34개소나 차지, 청량리역전의 20년된 삼흥서점, 동대문의 25년된 동대문 서적센터, 남영동의 흥익서점이 그 대표적인 예에 포함된다. 폐업한 34개서점중 12개소가 전자오락실로, 16개소가 스포츠용품 가게로, 그 나머지는 옷 가게로 바뀌고 말았다.

극성스러운 정도로 파급되고 있는 프로 스포츠의 증계, 무분별하게 성행하는 전자오락실, 교복자율화이후 학생들의 출입지역 자유화(?)등이 「反讀書문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오늘, 서점계의 적극적인 자세, 정부의 문화정책 차원에서 지속적 지원대책이 아울러 요망되는 것이 올라올 서점가의 「현장」사정이다.

(李相鉉 기자)

日刊스포츠

職場人の 讀書 趣向

서울의 직장인들은 한달에 「3권이상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 대부분 하루1시간, 월 2권정도 밖에 읽지 못한다.

이는 직장새마을 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지난 2개월동안 서울 시내에 있는 2백 65개 직장인 4천 3백13명(男 3,542명, 女 7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의 독서취향 조사분석에서 밝혀졌다. 직장인은 어떤책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에 초점을 둔 이번 조사에서 2권이상 읽는다가 40.8%, 1권이 34%, 5권이상이 11,

%, 한편도 안읽는다가 9.5%로 나타났다. 이들이 읽는 책은 실무와 관련된 전문 서적이 男48.4%, 女7.8%, 문학작품이 男29.7%, 女62.3% 대중잡지는 男26.3%, 女23.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전문서적을 많이 읽고 있다.

하루평균 책을 보는 시간은 1시간정도가 45.8%, 30분이상이 36%, 2시간 이상이 16.8%, 3시간 이상이 7%였는데, 2시간 이상 독서층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고, 또한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층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 남성독서의 상대적 약세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로 집과 직장을 오가며 시간나는대로 아무때나(46.5%) 저녁 한밤중(29.8%) 출퇴근시 차안에서(11.7%) 책을 읽고 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는 주로 사서 보며(68.1%) 도서관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12.6%정도. 책 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업무로 인해 그럴 여유가 없다(40.5%) 자기 계발의식이 부족해서(39%)라 응답, 두 유형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직장내 도서실이 있는 곳은 56.8%, 39.7%는 없으며, 그도저도 모른다고 대답한 독서 무관심과도 1.4%나 됐다.

직장내의 독서클럽은 11.5%만 있고 76%는 없는데 만약 독서클럽이 있을 경우 참여하겠다는 독서의지를 보인 사람이 81.7%로 나타났다.

직장내 도서실이 없는 이유는 독서에 대한 직장인의 열의부족(17.7%) 사회적 인식의 미흡(15%) 여유가 없어서(13.5%) 경영주의 무관심때문(7.3%)으로 보고 있다. 직장인들 대부분이 가까운 도서관 출입은 전혀 안하거나(69.9%) 가끔(21.5%)하는 정도. 책을 많이 읽게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책을 직장의 장이 구입해 줘야(34%)하거나 정부차원에서 독서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해야(30.4%) 하며 직장내 독서붐을 조성(22.4%) 해야한다고 보고있다.

특히 근무시간중 동료가 책을 보고 있을때 대부분 좋은현상(55%)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선 근무분위기를 흐리게 하므로 개선돼야 한다(28.2%)거나 잘난체하는것 같아 아니꼽게 보인다(2.9%)고 밝혀 직장내 독서에대한 일반의식이 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未納金を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協會는 財政自立이 마련되지 못한 채 다만 여러 會員들이 負擔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어려움을 깊이 理解하시어 未納된 團體會費와 個人會費 그리고 出版物代金を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면 대단히 感謝하겠습니다.